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양계업의 창업과 수성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양계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 고사에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이란 말이 있다. 업을 이룩하기는 쉬우나 이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이룩된 일을 지켜 나가는 어려움을 일컫는 말이다. 즉 양계장을 세우는 것은 쉬우나 세워진 양계장을 지켜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로 옮겨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비유가 다소 부적절할런지는 몰라도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당나라 태종의 물음에 답한 방현령의 대답에서 다소나마 이

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여 소개해 보았다. 양계장을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설계를 해서 어떻게 자금을 동원하여 생각한대로 계사를 짓고 병아리를 키워 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들이 마치 당나라 태종인 이세민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과정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어렵사리 마련한 당나라와 같은 양계장을 건실하게 경영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기란 창업보다도 더 어렵다고 양계인도 모두 느끼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이세민은 창업과정에서 두 형제를 죽였지만 재위기간 중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태평성대의 성군으로 업적을 빛냈다. 결국 수성을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양계인 중 많은 사람들이 양계장을 창업하면서 자금이 모자라 금융권에서 융자나 리스자금을 이용하여 고금리, 환율변동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하루살이식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요즘 양계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양계업의 보전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농장 보전도 급급한데 양계업이란 대업을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양계업이 어느 한 양계인이 잘한다고 자기 농장을 당장 건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양계인들이 여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려운 것은 같은 입장이다. 그러므로 해결도 같이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은 수성이 아니고 창업기의 혼돈과 같다고 보아야 난국이 풀린다. 양계인들의 생각여하에 따라 양계업은 보전도 될 수 있고, 대다수가 한꺼번에 빈사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30년 역사에 비추어 최대의 시련기를 맞이한 것이다.

환율과 금리,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공동대안 없이 서로가 각각 농장의 어려움만 탓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봐도 소용이 없다. 소비에 맞는 생산이나, 생산에 맞는 소비를 유도하는 길만이 양계업의 창업인 동시에 개인 농장이 생존할 수 있는 수성이라고 보여진다.

### 백색란 보급 확대 장애요인부터 찾아내자

우리나라에서 백색산란계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이다. 여기에는 농가

가 백색란을 생산하는 것보다 갈색란을 생산하는 것이 소득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인데 생산성이 향상되어서라기 보다는 유통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백색계 사육을 쇠퇴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백색계가 갈색계에 비해 대체적으로 체중이 적어 사료섭취를 약 10% 정도 적게 하면서 계란생산(총량)은 같다고 볼 때 사료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그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0%대까지 유지되었던 백색계가 갈색계에 밀려났던 것은 다름아닌 유통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이 갈색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생산자들도 노계값, 갈색란과의 가격차, 오염란 처리 문제 등으로 더 자극을 받아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92년부터 가금티푸스가 발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의과학연구소가 행한 연구결과 백색계가 갈색계보다 가금티푸스에 강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몇 년전부터 조금씩 백색계 사육이 증가하는 듯 하였으나 유통구조가 워낙 갈색란 위주로 정착이 된 관계로 백색란의 소비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결과대로 백색계가 갈색계보다 가금티푸스에 강하다면 우선 가금티푸스가 발병되었던 경험을 가진 농장들이 주축이 되어 백색란이 갈색란과 영양가가 동일하다는 소비자 홍보를 하면서 소비추이에 따라 백색계 사육량을 늘려나가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백·갈색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토종, 또는 재래종이라는 향수에서 기인된 자연란의 이미지 때문에 같은

값이면 갈색란이 영양적인 면에서 우수한 것처럼 여긴다. 생산자는 이같은 잘못된 점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

다음은 계란유통이 '80년대와는 출하방법이나 처리방법, 상품화 등으로 현재는 매우 달라졌다. 세척 후 미네랄코팅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오염원이 눈에 잘 띄는 단점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육종 차원에서도 백색계가 특란생산율이나 육성율면에서도 갈색계에 손색이 없도록 개량이 되어 소비만 된다면 사육을 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노계출하시 약간의 손실은 있을지라도 노계값은 연중 과거에 비해 낮게 형성되므로 사료비 절감과 가금티푸스 발병억제라는 장점과 상계하면 오히려 이익이 클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산란계를 모두 백색계로 바꾸자는 운동을 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연스럽게 혼용이 되어 특정 품종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지는 것이다.

어차피 소비자가 몰라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백색계를 사육하여 시장개척을 해주도록 기다리지 말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같은 뜻을 가진 채란인들이 힘을 모아 소비자부터 설득을 해나가는 수순을 밟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배합사료에 대한 인식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닭을 키우는 양계농가는 사료회사에서 제조

한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완전 배합사료인 셈이다. 그간 사료공급에 대한 방법을 놓고 제조업체, 사육농가, 정부의 입장은 서로 다름을 보여왔던게 사실이다.

가격과 품질을 놓고 결국 해석을 달리했을 뿐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양축가의 입장에서 보면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으면 된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산비가 적게 들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면 된다.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물가도 중요하고 농민과 공급자의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라고 행정력을 펴왔다.

결과적으로 배합사료가격은 자율화 되었으나 간접적으로 통제를 한 셈이고, 품질은 성분함량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채산성에 따라 원료의 질이 변할 수밖에 없어 섭취를 기피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고 양축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밝히고 있다. 여건이 변하여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인상을 억제하면 제조업체들은 그 손실의 일부분을 양축농가에게 전가시키게 되는데 이로인해 생산성 저하를 감안하면 차라리 가격을 인상하고 품질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양축가도 가격으로만 비교하여 사료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효율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품목이라도 영양함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싼것만 찾는 사양가를 공략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가 나오는 것은 양축가의 농장경영이 아직도 합리적으로 안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계**